

사회 >> 3면

어린 시절 추억의 유니버,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학술기획 >> 4면

철학 교수의 새 학기

현장르포 >> 5면

4대 공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제588호

2025년 4월 16일(수)

오감을 즐겁게 한 2025년 동아리 알림제...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다



3월 26일(수)부터 3월 27일(목)까지 41대 '바람' 총동아리연합회가 개최한 동아리 알림제가 스폰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동아리 부스 운영, 둘째 날에는 부스 운영 외에도 동아리 공연과 생맥주 행사, 다양한 이벤트, 해오름제가 이뤄졌다. 스탬프 투어 행사는 부스를 운영 하는 15개 동아리 중 5곳 이상을 체험하고 도장을 받은 후, 추첨함에 넣으면 뽑기를 통해 상품을 증정했다. 1등에게는 에어팟 4세대, 2등에게는

7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 3등에게는 카카오페이 10,000원 권을 경품으로 증정했다. 중간에 진행된 이벤트 퀴즈와 동아리 알림제 스토리 이벤트에서는 커피 쿠폰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플라로이드 촬영과 복권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동아리 알림제를 즐기는 데 재미를 더했다. 현재 서경대학교의 동아리는 5개의 학술분과, 8개의 체육분과, 4개의 공연예술분과, 3개의 전시창작분과, 2개의 교양분과, 3개의 종교분과로 이뤄져 있다. 이 동아리가 전 부스 운영을 맡았지만, 동아리 알림제에 참여한 모든 부스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됐다. 부스에서는 무알코올 하이볼, 소맥소떡 등 여러 종류의 간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절대음감 퀴즈, 사주풀이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다. 이후 동아리 공연에서는 유드림, SDR, ROTC 군악대 공연, 애니문, 그라미, 워커

스가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동기들과 돛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학우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고 즐기는 모습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16명의 동아리 가입 학우를 인터뷰한 결과 '현재 미래융합학부 신입생이라 선배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무지컬은 평소에 만들어보기 쉽지 않아 학생 때 경험해 보고 싶어서', '평소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등 동아리 가입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동아리가 개인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으로는 상당수가 '성취감'과 '사람과의 교류', '실력 향상' 등을 꼽았다. 동아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학우도 부스를 둘러보더니 "동아리가 다 재밌어 보인다"며 "모두 다 한번쯤 고려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리 미가입 학우 4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중 3명이 이번 행사를 통해 관심 가는 동아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동아리에 가입한 학우와 아

직 가입하지 않은 학우를 만나봤다.

[학우 인터뷰]

■ 신화승(공공 2) - 동아리 가입자

Q. 동아리 가입한 이유는?
 A.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을 하고 싶었고, 밴드부에 대한 낭만도 있어서 밴드부 활동을 원했습니다. 교내 두 밴드부 중 어쿠스틱 느낌을 원해서 워커스 말고 그라미로 가입했습니다.

Q.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정기 공연입니다. 한 학기 1회 공연장을 따로 대관합니다. 공연에 동아리 부원 대부분이 참가하는데, 할 때마다 뿌듯하고 재미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이 개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A. 원래는 복학해서 친구가 없

가 동아리 가입 후 부원들과 친해졌습니다. 음악적 욕구가 해소되고, 혼자 많은 대학생활 공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 김서영(광흥영 25) - 동아리 미가입자

Q. 동아리 알림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A. 사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Q. 동아리 알림제 장점/단점?
 A. 많은 학우가 어울려서 동아리를 체험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서경대 학군단, 미래 리더로 도약할 기회!

서경대학교 학군단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체계적인 군사교육과 대학 전공 학문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서경대 학군단은 철저한 선발 과정과 집중 훈련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를 기르며 사회적 책임과 봉사 정신을 갖춘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는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폭넓은 진로 기회가 주어진다. 소규모 운영을 통해 밀착 지도를 받으며, 강한 동료애와 인생의 소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면 서경대 학군단에 도전해보자.

□ 지원서 접수 마감 : 4월 27일

□ 지원 방법 : acq.armyofficer.mil.kr / 화보에 있는 QR코드 이용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직 승계

지난 4월 8일, 제53대 서경대학교 총학생회장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다. 총학생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36조 2항에 의거해 2025년 4월 8일부로 부총학생회장 최창조(국제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가 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해 업무를 이어간다.

한 해의 무사를 기원하며, 해오름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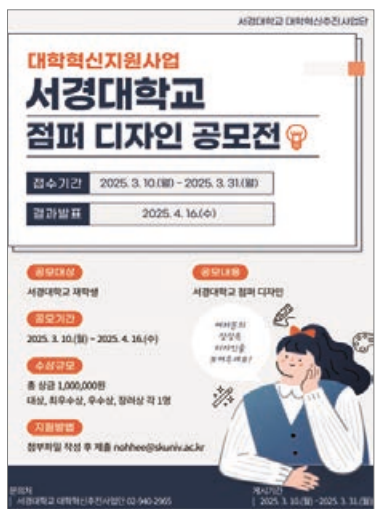
이들간 진행된 동아리 알림제가 끝난 후, 3월 27일 18시 30분부터 해오름제가 진행됐다. 해오름제는 한 해의 무사와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다. 스폰 스퀘어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인문대, 사과대, 이공대, 예술대, 미용대, 신문사, 총동연 회장단이 모였다. 무대 위에는 제사상이 놓였다. 실제 돼지머리를 사용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돼지 모형이 사용됐다. 이 외에 대추, 각종 전, 배, 사과, 약과, 편육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됐다. 각 단과대 및 단체의 회장단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한 해의 무사와 학우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을 전하며 음복했다. 행사 도중 강한 바람 탓에 종이접기 비닐봉지가 날아가는 소동이 몇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한빛 총학생회장 한기찬(금공 20) 학우는 "올해 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올 한 해의 액땀이 다 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사고로 모든 액운을 다 가져갈 테니, 학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사발식에서는 총학생회와 인문대, 이공대, 미용대, 총동연이 참여해 막걸리를 마시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서경대 굿즈는 우리가 만든다!

한빛 총학생회 · 대학혁신추진사업단, '서경대 점퍼 디자인 공모전' 개최

제53대 한빛 총학생회가 지난 3월 10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과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경대 학교 점퍼 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알렸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혁신추진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회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심사에서는 수상작 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8작품을 선정한다. 상징성, 심미성, 적합성, 독창성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어지는 2차 심사에서는 재학생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열리는 재학생 투표 내 득표수는 점수로 환산되며, 최종 점수에 재학생 투표 40%, 1차 심사 점수 60%가 반영되어 수상작이 결정된다. 한빛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소속감과 애교심 제고를 위해 학교 점퍼 제작을 기획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히며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은 4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총 4작품이 시상대에 오를 예정이며, 대회 상금은 대상 400,000원부터 장려상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점퍼 디자인은 실제 학교 점퍼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수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5학년도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서경대학교 점퍼 디자인 공모전' 개최 안내' 글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사 령

4월 16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합니다.

- ▶ 임 수습기자 김규민 (광흥영 25)
- ▶ 임 수습기자 김호성 (미 용1 25)
- ▶ 임 수습기자 송정아 (미 용2 25)
- ▶ 임 수습기자 심화평 (아 텍 25)
- ▶ 임 수습기자 유승윤 (미 용1 25)
- ▶ 임 수습기자 전세찬 (미 용1 25)
- ▶ 임 수습기자 정소영 (광흥영 25)



서경대 학군단, 당신의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



2025 서경대학교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열려... 어떤 이야기 오겠나



지난 3월 20일 18시 30분, 본교 문예관 문예홀에서 2025 서경대학교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진행됐다.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및 학과 회장

단과 학과 학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창조 부총학생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서경대학교의 대표자로서 또는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로서 서경대학교의 새로

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귀한 발견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학생 대표자 여러분들과 함께 서경대학교 학생 사회가 발전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1) △집국 인준 △예결산 보고 △활동 보고 △공약 보고 △총학생회 회칙 개정(2) △사전질문 △기타 및 건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회칙 개정이 두 차례 진행됐는데 첫 회칙 개정은 이어질 집국 인준을 위한 내용이라 먼저 진행됐다. 이 개정에서 기존 '졸업준비국' 명칭이 '미래교육국'으로 변경됐다.

이어 총학생회 규장들의 인준 절차가 이어졌다. 참여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모든 국장이 인

준됐다. 이후 사무국장의 예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활동 보고에서는 졸업식, 신입생 문화제, 사물함 대여, 정퍼 디자인 공모전 등 한빛 총학생회가 진행한 활동이 소개됐다.

공약 보고에는 총 8개 항목이 보고됐다.

먼저, '학사 구조 개편 이후 학생 요구 사항 이행'이다.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폐강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2학기 폐강 기준이 3명에서 5명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ID-LAB과 같은 공간 요청에 Co-working space 2가 완성됐다.

두 번째는 '미래융합대학 전공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다. 전공 체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전공 알림제가 2학기 시행 예정이며, 기초 전공 지식이 부족한 1학년들을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다음 '학생복지시설 노후화 개선'이다. 학기 방학마다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배리어 프리 확충과 외부 노후화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4월 중으로 전체적인 노후화 시설을 종합해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점포기제'는 올해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학기 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이나 상시 신청 방식을 요청했으며, 학교 측에 따르면 서경 포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전체 학생 대상 MT'는 2학기 초에 진행될 예정으로, 예상 규모는 400~500명이다.

이어 '경기 체육 리그'다. 시설 사용 협조 및 각종 행사 시기 등을 고려해 토너먼트 왕중왕전식으로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다. '버스 밀집 현상 개선'도 보고됐다. 성북07번 버스 노선을 학교 주차장 후문 쪽을 경유하도록 변경 요청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릉골 상점가 이름을 정릉 서경대길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정기 보고'는 매주 진행되는 중은위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래융합대학 신설로 인한 회칙 개정이 진행됐다. 이후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학생 사회 개선에 힘쓰고자 많은 질문이 이어져 이번 질의응답 시간은 30분 동안 진행됐다. 오늘 전학대회를 발돋움 삼아 서경대학교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무거운 짐은 여기! 헤인관 사물함 대여 실시

한빛 총학생회가 2025학년도 1학기 헤인관 사물함 대여 사업을 실시했다. 사물함 대여 기간은 3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다만 학사일정 변동 시에는 이용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대여 비용은 총학생회비 납부자는 무료, 미납부자는 10,000원이었다. 신청은 3월 4일 9시부터 3월 7일 18시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됐다. 네이버 폼은 총별로 나눠졌으며 인원이다 차를 경우 자동으로 폼이 마감됐다.

2층과 4층은 새로 설치한 전자 사물함이고 나머지 층은 기존 나무 사물함으로, 사물함 종류와 층별 접근성에 따라 선착순 마감이었다. 신청 마감 후 배정된 사물함 위치에 대한 개별 연락은 3월 10일 18시 이전까지 문자로 안내됐다.



3월 11일에는 한빛 인스타그램에 '헤인관 사물함 관련 개별 문의가 많아 당일 중으로 개별 안내드리겠다'는 공지 스토리가 올라오기도 했다.

폼 링크에는 '사물함을 양도할 경우 다음 학기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경고문이 있었으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양도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UMC 7th 데모데이'

대상의 영예를 안은 변예섭 학우를 만나보다



▲ 출처: 본인제공

본교 학우들이 'UMC 7th 데모데이(Demo Day)'에 참가해 대상을 받았다. 전국 최대 규모 IT 연합 동아리인 UMC(University MakeUs Challenge)가 주최한 UMC 데모데이는 약 6개월 동안 워크북과 실습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 대회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팀을 이뤄 약 2달간 개발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발표하

고 평가받는다. 이번 기수에는 약 70팀이 참가했다.

김태현(전컴)·남궁강(전컴)·변예섭(소웨)·최신규(소웨) 학우와 다른 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대상 수상 팀의 '이거 먹자' 앱은 주간/월간 식단 구성, 식재료 시세를 비롯해 건강관리까지 제공하는 AI 식단추천 앱이다. 수상한 4명의 학우 중 변예섭 학우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3학번 변예섭입니다. 개발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고, 현재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Q. 팀원들이 모인 이유와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UMC에서는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발표하고 개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저는 여러 아이디어 중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느낀 이 프로젝트에 백엔드 개발자로 지원했고 그렇게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개발자 8명이 모여 총 10명이 모여 팀이 됐습니다.

Q. 대상 수상 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A. 두 달 동안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특히 저희 프로젝트가 실사용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건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고민하고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사람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짧게는 군 복무 동안 기술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며 관심을 넓히고, 길게는 전역 후 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서경대,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 여성 리더 양성 플랫폼 지원할 것이라 밝혀



▲ 출처: 서울시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경대학교는 지난 24일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경대는 미래를 이끌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교내 취·창업과 관련된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기반을 확립해 많은 여성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1989년에 설립되어 2004년부터 서울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교육의 질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파이션 기반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문가 교육, 현장 맞춤형 조리 실무전문가 교육, 스마트 그린 복지원에서 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취·창업과 관련된 구인·구직 공고와 창업 멘토링, 창업 상담 등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은 무려 121만 5천 명에 달한다. 여기서 경력 단절 여성은 14~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결혼,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일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169만 9천 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미취업 상태인 여

성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새로일하기센터,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자격연구원 등의 기관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 '새일센터 직업 훈련 및 참여 수당'은 최대 4개월·월 10만 원 지원, '인턴 채용 지원금'은 최대 3개월·월 80만 원 지원, '고용 유지장려금'은 6개월 후에는 140만 원·12개월 후에는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멜로망스 정동환, 서경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임용

남성 듀오 '멜로망스'의 멤버 정동환이 데뷔 10년 만에 서경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정동환은 2020년부터 서경대 강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왔으며 올해로 출강 6년 차가 됐다. 전임교수로 임용되는 만큼, 기존 실용음악과 커리큘럼은 물론 실전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동환

은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수한 후배 가수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참고: 조선일보]

정동환은 작년 2월 서경대 서포터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악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교수님과 뮤지션들에게 받은 좋은 영

향을 제 후배 뮤지션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온 이상 열심히 음악을 해서 졸업하겠다는 태도를 장차하면 좋을 것 같다. 수업 듣게 된다면 좀 차가울 수는 있어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다. 쓴 소리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며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 당부도 전했다.

정동환은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피아노 전공을 졸업했으며 버클리 음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멜로망스로 데뷔해 2017년 히트곡 '선물'로 멜론 연간

차트 18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 내내 주간차트 TOP 100에 차트인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3월 11일 진행된 KBS2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 - 박보검

의 칸타빌레' 제작발표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출처: SKU CAST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절정으로 치달은 여야의 갈등</p>	<p>경제</p> <p>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트럼프 마음 따라 흔들리는 세계 경제</p>	<p>사회</p> <p>다이소 건강기능식품은 '빛 좋은 개살구'? 일약약품, 다이소 판매 철수</p>	<p>문화</p> <p>어린 시절 추억의 주니버,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p>	<p>연예</p> <p>'꼭씩 속았수다' 인기예... 中 불법 시청에 이어 초상권 무단 사용</p>	<p>스포츠</p> <p>"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음바페, 무리한 태클로 퇴장</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절정으로 치달은 여야의 갈등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셋째 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 문제, 구속기간 계산 방식 오류 등의 사유로 윤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의 석방이 결정된 이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8일 윤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거듭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선고 날까지 현재를 압박하며 팽팽한 여론전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여권이 탄핵 기간·각하 여론에 힘을 얻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불을 놓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쓰아붙였다. 여기에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탄핵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동은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감금·체포협박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을 낱알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을 격화시켰다. 서울 시내 전방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윤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 출처: 연합뉴스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다. 석방 이틀 뒤인 3월 10일 오전에는 보수 집회 참가자가 '진보 진

영의 유튜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140여 명이 현재 앞에

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다이소 건강기능식품은 '빛 좋은 개살구'? 일약약품, 다이소 판매 철수



▲ 출처: 한국농어촌방송

다이소가 2월 24일부터 제약사 일약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과 협업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일약약품은 △비타민C 츄어블정 △소팔메토 아연 △잇애크 △비타민C 저분자 콜라겐 등 총 9개 제품을 선보였다. 대웅제약은 △중환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B △밀크씨슬 △루테인 △칼슘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오메가3 △어린이 종합 건강 비타민 등 총 26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은 △라보팻 골드와 △루테인 지아잔틴을 판매한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기존 건기식 한 달 분은 평균 20,000~30,000원 대다. 이에 비해 다이소에서는 성분과 함량을 조절해 가격을 약국 대비 10~20% 수준인 3,000~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유명

제약사에서 출시한 만큼 신뢰도도 높고 성분도 비슷하기 때문에 재고가 동남 정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 건기식과 다이소 건기식의 성분이나 함유량, 원산지, 용량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며 집단 반발했다. 약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대웅제약에서 주문한 것 전량 반품했다", "5,000원짜리 약 먹고 싶은 분은 다이소로 가면 되고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 먹고 싶은 분은 약국으로 오시면 된다" 등의 격양된 글이 올라왔다. [참고: 한국농어촌방송]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 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약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이소에 공급하는 마케팅에 대해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건기식의 공급가도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약약품은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닷새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13일 대한약사회에 대해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약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연합뉴스TV]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트럼프 마음 따라 흔들리는 세계 경제



▲ 출처: kbs뉴스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하 젤렌스키)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는 정상회담 후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간 거친 논쟁이 벌어지며 이후 일정이 무산됐다.

50분간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은 각각 미-우 광물 협정, 러-우 중전 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0분쯤부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젤렌스키는 푸틴 대통령은 25번이나 서명을 여겼으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후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 지적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상황은 자초한 것이라며 "수백만 명과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한다"고 젤렌스키를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라 쓰아붙였다. 중국엔 "미국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엔 전쟁을 끝낼 카드가 없다.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빠질 것"이라

며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출처: 연합뉴스] 현지 언론은 둘의 충돌이 러시아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선 "중동평국은 물론, 적대국도 카메라 앞에서 방문국 지도자를 이렇게 심하게 비난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3월 2일 젤렌스키가 광물협정 서명 의향을 밝혔으나 트럼프 측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원한다면 협정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와 협상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한단 식의 '정권 교체' 압박을 넣었다.

작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급진적 정부 개편을 통해 중성 인물들을 모아 보수적 가치에 집중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가상자산 규제 풀고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란 공약 덕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비트코인은 8만 9천 달

러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취임 첫날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배치한 그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펼쳤다. 파리협정 탈퇴·화석연료 개발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키고, 기업 세율 인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업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이민자 대량 추방, 외국산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 부과, 환경 보호 정책의 후퇴 등 트럼프 주요 공약들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이전까지 사실상 무관세에 가깝던 멕시코·캐나다에 25%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2월 1일 서명했다.

한국은 멕시코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아시아 국가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투자했으며, 작년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LG전자 등 525사가 멕시코에 진출했다. 캐나다엔 LG에너지솔루션이 2조 원 가까이 투자했고, 포스코퓨처엠 등도 진출했다.

관계자는 "미국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이 낮은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택한 것"이라 말했다. 대미 수출 무관세가 적용됐던 배터리용 핵심 광물이 풍부한 캐나다에 투자한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참고: 조선일보]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많은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트럼프의 경제·국가안보 관련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어린 시절 추억의 쥬니버,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어린이 전용 포털 서비스 '쥬니버네이버(이하 쥬니버)'가 26년 만인 5월 27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네이버 공지 사항에 따르면 5월 27일 15시에 쥬니버가 종료될 예정이다. 쥬니버에서 제공되던 동요, 사파리, 역사상 등 영상 일부는 네이버 TV에서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쥬니버 서비스 중 스캐치북 서비스와 쥬니버 TV 속 저장된 사진 등은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될 예정이며 백업 및 보관이 되지 않아 서비스 종료 전 백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쥬니버는 1999년 6월 등장한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포털이다. '게임랜드', '동물농장', '파니툼' 등 다양한 게임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린이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어른까지 많은 이용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쥬니버를 접한 현 20대·30대에겐 '쥬니버 세대' 혹은 '쥬니버 키즈'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쥬니버는 2000~201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어린이 전용 포털 서비스다.

2012년 서비스 종료한 '아후 꾸러기'와 2015년 서비스 종료한 '다음 키즈짱'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쥬

니버는 26년간 곳곳하게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 쥬니버 서비스 중 '동물농장' 서비스 종료로 시작으로 '게임몽치', '스타일업', '쥬디게임', '키니위니' 등이 종료됐다. 이후 2019년 2월 28일 '게임랜드' 서비스까지 끝나며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모두 종료했다. 2020년 어도비에서 적용됐던 플래시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이라 미리 서비스들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서비스를 축소하는 와중에도 쥬니버 측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자를 위해 PC 서비스보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서비스로 개편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개편해 주제별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가 많이 제공돼 더 이상 시장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자,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쥬니버 서비스 종료 이유에 "자원이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인 AI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에 집중해 미래 세대 중심의 AI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인 엔트리를 확장해 AI 교육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15046@skuniv.ac.kr)



▲ 출처: vislmagazine

철학 교수의 새 학기

반성택 서경대학교 교수

개학 하자마자 학보사에서 메일이 와 있었다. 칼럼 청탁이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분량의 글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생각이 며칠 이어졌다. 교양 세 과목 진행을 막 시작했는데 그 생각에 몰두해선지 어느 강의에서 붙속 글 제목을 '폐과 이후 철학 교수의 새 학기'로 할까, 농담 반 진담 반 털어놓은 순간 몇몇이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게 보였다. 말하는 나도 좀 센 표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오래 다닌 대학을 이제 조용히 떠나려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 칼럼 작성을 의뢰했을까? 혹시 비상계엄과 탄핵을 다뤄달라는 것일까? 몇 주간 학보사 신문을 뒤져 보니 그런 기사들이 여럿 보였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법률 전문가의 전성시대였다. 필자는 20세기 중반을 분수령으로 귀족들이 몰려가고 이들이 독점했던 권력과 돈의 세계를 이 시대의 전문가 집단이 그대로 접수했다는 구도에서 계엄과 탄핵을 지켜보고 싶었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 세계대전은 인간의 오랜 역사에서 특이한 세상을 낳는다. 왕실이 사라지고 제국주의가 몰려가며, 신분제 귀족이 주도권을 상실한다. 이들이 오랫동안 장악해 왔던 권력과 돈은 어디로 갔는가?

서양의 60, 70년대를 거치며 중산층이 두꺼워진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구호가 들리던 90년대 전후, 이 추세는

겪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20여 년 늦게 이 현상이 나타난다. 80년대부터 대학 진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중산층의 성장과 사회 진출이 이뤄지고 새천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멈춘다. 국가가 자격증 숫자로 진입 장벽을 쳐놓은 직종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심지어 전문인이 국가의 공공성도 넘보고 장악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의사는 파업을 무기로, 검사는 기소독점권으로 질주한다.

검사들이 2019년 늦여름부터 질주한 것이 검사 출신 대통령의 당선과 작년 말 일탈의 서막이었다. 그해 6월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난다. 한반도 역사의 변화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전해진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일본 수상은 수출규제에 나선다. 그리고는 '노재팬운동'이 확산되고 국론통일이라는 말도 들린다. 두 달 뒤, 검찰이 참전해 국론통일 분위기를 일거에 잠재운다.

이들은 선거 승리로 잠깐의 정당성도 확보하자 이 사회의 방향도 정하고 싶다. 더 나아가 역사성이 짙게 스며들어 있는 이슈에도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집권 몇 달 뒤 일본과 핵 오염수 문제를 합의하고 지지율은 곧바로 30% 초·중반대로 내려가 고착되고 총선에서 대패한다. 질주하던 권력이

훼손되자 반격에 나선다. 비장한 표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러한 귀결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현대 국가들은 겉으로는 헌법공공체다. 그런데 하나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역사해석 공동체다. 헌법도 이 역사해석을 공유하는 이들이 합의한 산물이다. 그는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력으로 이 공동체의 역사해석까지 결정하고 바꾸려다 강제로 멈춰선 것이다. 이렇듯 헌법이 결정하기는 하나, 그 바탕에는 역사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성과 역사의 추세에 어긋나게 권력을 행사하다 멈춰선 것이다.

칼럼을 의뢰받고 글을 써 가며, 아울러 교양 세 과목을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전공, 전문가, 직능성에만 머물리지 않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도 한 명의 인간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인 검사로 시작해 이를 발판으로 최고 권력자에 오른 다음에도 여전히 전문인의 능력에 마냥 머문 게 그의 실패 요인이다.

대학 교육은 전공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교양교육도 수행한다. 철학과가 문을 닫아 이따금 회고적으로 지내기도 하나, 교양 세 과목만을 진행했던 최근 몇 학기는 상당히 자유로웠고,

또한 새로 대하는 젊은이들과의 한 학기 한 학기는 나에게 전문적인 철학 이야기기 왜 등장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늘 준비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의 교양과목 리스트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과목명이 긴 강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동시에 대학의 대학다운 성격을 지탱해 주는 과목 리스트가 여전히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다. 크지 않은 대학이라 모든 커리큘럼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큰 대학만큼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해 교양교육을 운영하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공공도서관이나 사내 대학의 강좌와 유사한 쪽으로 이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오히려 실용교육을 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초학문을 접하도록 하는 교양강좌 풀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용교육의 기초적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본다. 자연과학, 그리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같은 분야들, 또한 문·사·철 분야 쪽에서 유래하는 학문적 토대와 토양을 대학생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교양과목을 진행할 교수진의 안정적인 지위와 처우가 그 과목의 운영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교수들의 존재로 발전하는 대학이었으면 한다.

* 기고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의 투자 첫걸음 훈련 전략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요즘 국내의 경제가 심상치 않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리면서 '투자'라는 단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칼럼에서는 대학생이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투자 훈련 전략 5가지를 소개할게요.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재밌는 예시도 곁들여, 투자 첫걸음을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얼마 전, 모 증권회사에서 진행한 대학생 투자 관련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주식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등 스스로 번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응답자 중 65.1%가 주식투자 기간이 1~3년이라고 답했는데 1년 미만을 포함하면 81.4%나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투자금을 마련한 방법을 묻자 응답자의 64%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라 답했어요. '돈(28.1%)'이나 '상속·증여 자산(4.9%)'보다 많았고 신용거래 등 대출을 통해 투자하는 '빚투' 투자자는 18.2%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대출받아 투자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주식투자를 접하게 된 경로는 '지인의 권유'가 44.9%, 신문·잡지·도서가 14.4%로 뒤를 이었어요.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세대답게 유튜브(14%)와 온라인커뮤니티·SNS·블로그(13%)라고 답한 대학생 투자자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투자 종목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한다고 답한 이들이 많았어요.

투자 판단 요소 질문에는 26%가 '종목의 사업 전망 및 경쟁력', 22.8%가 '종목의 최근 실적 및 재무 상태'를 꼽았고, 이어 '테마 움직임'(18.1%), '경제환경이나 제도 수혜'(13.7%) 순이네요.

대학생의 투자 준비 훈련 전략

지금까지 많은 대학생이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투자의 세계로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제가 알려 드리는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1. 뉴스 한 줄 읽기: 경제 흐름 파악하기

투자의 첫걸음은 정보예요. 하루에 경제 기사 딱 한 줄만 읽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로, 2025년 3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75%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에요. 즉,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대출은 부담스럽단 거죠. 예를 들어 5,000원인 커피 한 잔 값을 예금에 넣으면 1년 뒤 137원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물가 상승보다는 낫죠! 매일 뉴스 한 줄씩 읽으며 "금리가 뭐지?", "환율이 왜 오르나?" 같은 궁

금증을 키워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는 습관!' 이 가장 중요하지요.

2. 용돈으로 모의 투자해 보기

한국투자증권의 '미니스탁'이나 키움증권 '영웅문' 등 모의 투자 앱에서 소액으로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를 사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도 있어요. 용돈 1만 원으로 애플 주식 0.1주를 샀다고 가정하고, 환율이 1,450원으로 오르면 돈이 조금 더 불어나는 원리를 느껴 보세요. 그리고 실제 미국 주식시장에도 관심을 가지면 글로벌 경제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3. 생활 속 작은 투자 실험

일상에서 '가치가 오를 물건'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시로, 한정판 스니커즈나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서 중고로 되팔면 수익을 낼 수도 있죠. 2025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사람들이 다시 소비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을 2,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아봤다면

그게 바로 투자예요! 이런 실험으로 '사고파는 타이밍'을 익혀 보세요.

4. 친구와 투자 토론하기

혼자선 막막하다면 친구들과 모여 "뭐에 투자할까?" 얘기해 보세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트럼프 정책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주제로 "나라면 주식 살 거야, 달러 살 거야?" 하며 의견을 모아 보세요. 친구 A는 "환율 오를 테니 달러 사자!"하고, B는 "금리 높으니 예금이 낫다!"하면, 서로의 논리를 들으며 투자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서경대학교의 멋진 학생 여러분! 투자는 멀리 있는 게 아녜요. 뉴스를 읽고, 용돈으로 연습하고, 생활 속에서 실험하며,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투자 감각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투자 관련 아주아주 유익한 교양과목이 많아요. 다음 학기부터라도 꼭 수강 신청해서 투자의 달인 대학생이 되 봅시다!

* 기고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북핵 위협을 직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때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쳐 탈냉전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질서는 대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이에 맞선 반서방 세계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형성됐다. 말하자면 미국이 일종의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며 서방세계의 방패막이를 자임했다.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철저히 무장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국제사회가 큰 소용돌이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선악과 가치의 논리보다 국익과 힘이 최우선인 냉혹한 국제질서가 도래하며 세계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산업 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함께 관세 압박 등에 따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안보상 부담 요인도 상당하다. 이 와중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북한 핵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화 따로, 핵 따로'라는 기만

술책 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핵 개발을 강행해 왔다. 지금까지 6차례의 핵 실험을 거쳐 이른바 표준화·경량화·다중화를 실현하고 실전에 배치할 정도의 핵무기를 확보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다.

핵은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중요하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 왔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비롯해 극초음속·순항미사일 같이 기존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가장 핵심인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 역시 국제사회의 공통된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로 볼 때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미사일 완성 가능성도 상당하며, 그 경우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채 혈맹인 한국을 지켜줄지가 의문인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코리아패싱)한 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

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스물딜)에 나설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북한에 핵 인질이 되어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선 탈북민들을 앞세워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러 가지 체제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뒷배까지 생겨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핵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핵은 무기의 끝판왕이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내 도리가 없고, 당장 핵무기를 생산할 인프라도 갖춰있지 않다. 그밖에 핵우산이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잠재적 핵 능력 보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국제사회와 미

국의 용인이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순위는 아닐 것이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 등을 운운하지만 타고난 협상가인 그의 화법을 생각할 때 선불리 예단 하지도 말아야 한다. 대신 경제할 건 실마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겠냐는 식의 '확증편향'이다. 더욱 유념할 일은 한미동맹만을 앞세워선 실리주의자인 그를 설득할 수 없다란 점이다.

지금으로서 가장 절실한 것이 '코리아패싱'을 막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가치와 선악이 아닌 힘과 국익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이 올해가 '냉전 후 가장 위험한 한 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기고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 궁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알록달록 꽃봉오리가 돌아난다. 바람이 시원하면서도 따뜻함을 담고 있는 것을 보니, 봄이 왔다. 광화문, 명동 어디를 가도 여행 온 외국인들과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

은 단연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궁궐이다. 흔히 4대 궁이라 불리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를 관람할 수 있는 궁궐 통합관람권이 재출시됐다. 궁궐 통합관람권 가격은 6,000원으로, 모든 궁에 입장한다고 했을 때 성인 기준 총

3,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창덕궁 후원 관람권과 덕수궁 미술관 관람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관람권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각 궁을 1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1년간 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관람권', 한 달 중 관람 시간 내 언제나 구입할 수 있는 궁안 입장 가능한 '상시 관람권' 등 다양한 관람권이 존재한다. 이제부터 만나볼 취재부의 궁 소개 글이 마음에 든다면 이번 봄에는 궁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다가오는 봄의 설렘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하다



추위가 한 층 꺾여 표근해진 날씨, 봄이 다가오나 보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주말, 서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복궁에 다녀왔다. 현 세태로 인해 경복궁 앞은 낮과 밤에 상관없이 시위자들로 붐볐다. 천막과 텐트, 준비한 시위 깃발들이 경복궁의 모습을 일부 가려 온전한 모습을 느낄 수 없었지만 역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장소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알려진 경복궁은 백악산을 뒤로 하고 좌우에 낙산과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복궁은 들어가는 순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1395년 창건된 경복궁은 임진왜란, 을미사변, 경술국치 등 수많은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다. 이에 궁의 외관은 위엄과 고풍스러움을 풍긴다.

수많은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경복궁은 1968년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시작됐다. 1995년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2001년 흥례문 권역 복원, 2010년 광화문 목조 복원, 2023년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이 이어졌으며 완전한 경복궁의 모습은 2045년 볼 수 있다고 한다.

주말을 맞아 경복궁에는 수많은 연인들과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했다. 한복을 입고 궁을 거닐며 역사를 온전히 느끼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필자에게 '봄이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필자는 3월 중순에 방문해, 경복궁은 막 겨울에서 벗어난 모습이라 봄꽃이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4월 초~중순에 방문한다면 능수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경회루와 능수 벚꽃의 조화는 짝이만 해도 작품이 될 정도로 그 자체가 청연하다고 한다.

4월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행사로는 4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행하는 '경복궁 별빛야행',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행하는 '경복궁 생과방',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시행하는 '궁중문화축전'이 있다. 모든 행사는 유료이며 경복궁 생과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50% 할인된다.

필자는 이 중 '경복궁 별빛야행'을 추천한다. 오로지 이 행사에서만 밤이 돼 고요해진 경복궁의 모습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식사와 공연을 즐기고 산책까지 하며 궁의 주인이 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4월 서울에서 봄을 느끼고 싶다면, 경복궁에 방문해 보면 어떨까?

가장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쪽 직진하면 창덕궁 돈화문에 다다를 수 있다. 이곳을 통해 입장하려 했으나 돈화문이 2027년 7월 31일까지 보수 공사 중이라 옆의 금호문으로 입장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모두 무료입장이 가능한데, 마침 필자가 간 날이 해당 일이라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1405년 법궁인 경복궁의 이궁으로 창건된 창덕궁은 1997년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이궁이란 궁성 밖에 마련된 임금의 거처로, 창덕궁은 창경궁과 함께 '동궐'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다가 1610년에 궁궐 중 처음으로 중건됐다. 이후 1867년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약 270년 동안 역대 왕들이 이용해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창덕궁은 인위적 구조를 따르지 않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건축해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호문을 통해 들어가 금천교를 건너 뒤, 진선문을 지나 왼쪽으로 꺾으면 인정문에 다다른다. 인정문을 통해 들어서면 인정전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어진 정자'라는 뜻의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1월 1회 인정전 내부관람이 진행돼 해설과 함께 인정전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인정문은 1985년 국보 제225호로 지정됐다.

함원전, 경춘각 등이 포함된 대조전 권역은 공사 중이라 쉽게도 관람할 수 없었다. '큰 공업을 이룬다'란 뜻의 대조전은 창덕궁의 정식 침전이자 왕비의 생활 공간이다. 대조전은 창덕궁 전각 중 유일하게 용마루가 없으며,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경복궁 교대전을 옮겨 회정당처럼 내부를 마루와 유리창 등 서양식으로 꾸며 현재 대조전이 됐다. 대조전 부속 건물인 흥복헌은 1910년 경술국치가 결정됐던 비운의 장소기도 하다. 대조전 보수 정비 공사는 2025년 6월 1일까지 이어진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창덕궁 후원에 들어가기 위해 한복을 꼭게 차려입은 외국인들도 줄을 섰다. 아주머니들이 혼자 온 외국인의 사진을 열정적으로 찍어주는 정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후원은 1406년 창덕궁 북쪽에 처음 조성 후 1463년 확장됐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이후 옥류전, 규장각, 주합루, 애련지, 의두합, 연경당 등이 추가로 조성됐다. 부용지, 애련지, 관람지, 옥류전 일원의 끝까지마다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건축과 조경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정원으로 손꼽힌다. 이 덕에 창덕궁은 업무 공간과 함께 휴식과 생활 공간이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된다.

아직 소개하지 못한 멋들어진 공간이 너무나도 많다.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창덕궁 후원 관람 예약, 전각 관람 예약, 심화 해설 등 다양한 해설 및 관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다가오는 봄, 궁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도심 속 시간 여행, 덕수궁 나들이



덕수궁은 서울 중심부 중구에 위치한 궁으로, 전통 규범 속 서양식 건축을 수용한 근대적 궁궐이다. 덕수궁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자리해 서울 한복판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서울 4대 궁 중 하나다. 궁을 거닐다 보면 웅장한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전각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덕수궁에서 과거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덕수궁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입장은 마감 30분 전인 오후 8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입장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만 25세~만 64세는 1,000원,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한복을 착용하거나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역시 무료로 덕수궁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과 입장료는 4대 궁이 모두 동일하다.

덕수궁은 방문객들을 위해 오디오 및 현장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디오 가이드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재생되며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 안내판 속 QR 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돼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 가이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 해설가와 함께 돌아다니며 덕수궁의 역사와 건축 등을 알아본다.

필자는 덕수궁의 오디오 서비스를 이용해 덕수궁 곳곳을 돌아봤다. 덕수궁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인 중화전은 국가 행사를 치르던 장소로, 중화전 앞에는 2단으로 된 월대와 품계석, 임금이 다니는 어도 등 전통 궁궐의 격식을 갖춘 공간이다. 중화전은 원래 중종 건물이었으나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1906년 단층으로 규모를 줄여 다시 세워 현재의 중화전이 되었다.

덕수궁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대표적인 건축물인 석조전을 알아보자. 석조전은 1910년 완공된 서양식 석조건물로, 고종이 침전 겸 편전으로 사용하려고 세운 공간이다. 현재 석조전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운영되며 접견실, 식당, 황제 서재, 침실 등 다양한 역사 속 공간을 보존해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덕수궁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즐길거리가 존재하는데, 바로 덕수궁 돌담길이다. 덕수궁 돌담길은 덕수궁을 둘러싸고 있는 고풍스러운 돌담이 이어지는 산책로를 말한다. 특히 벚꽃과 개나리처럼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는 봄에 보는 풍경이 아름다워 봄에 덕수궁을 방문해 덕수궁과 돌담길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창경궁, 격하의 시간을 넘어 품격을 되찾다



창경궁은 원래 1418년 세종이 상왕 태종을 위해 창건한 수강궁이 있던 자리다. 이후 1483년 성종이 세 명의 대비를 위해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고 궁의 이름을 창경궁이라 지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중건했으며, 1830년 대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됐다가 4년 뒤 중건됐다. 그러나 1907년 순종이 창경궁 내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궁궐로서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일제에 의해 이름마저 창경원으로 격하됐다. 광복 후 다시 창경궁으로 명칭을 회복한 후, 궁궐 내에 있던 동물원을 이전하고 복원 공사를 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버스를 타고 역에 내리자마자 왼쪽으로 창경궁의 정문인 흥화문이 보였다. 흥화문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옥천교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명정전이 보였다.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명정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616년에 재건됐으며 현재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통명전은 왕비의 침전이며 내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건물이다. 통명전 서쪽에는 샘과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돌난간과 작은 돌다리가 놓여져 있다. 지금은 연못이 말라 있어 돌 장식품만이 보였다.

춘당지는 현재 두 개의 연못으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뒤쪽의 작은 연못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본래의 춘당지다. 1909년 일제가 창경궁을 훼손할 때 이 자리에 연못을 파서 유원지로 만들었다. 춘당지를 따라 걸으니 발걸음 소리를 듣고 불어오는 바람이 밥을 달라며 입을 뻐꾸거렸다.

이곳에서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창경궁 물빛연화'가 운영된다. 춘당지를 중심으로 총 8곳의 장소에서 각기 다른 주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꾸며진다.

춘당지를 지나자, 궁 안에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근대화 건물이 보였다. 대운실은 1909년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 유리로 둘러싸여 있다. 준공 당시에는 열대지방의 관상식물을 비롯한 희귀한 식물을 전시했다. 1986년 창경궁 복원 이후에는 국내 자생 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2004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대운실에 들어가자마자 흙 더운 기운이 풍겼다. 안에는 꽃내음이 자욱했으며, 관광객들이 꽃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비친된 작은 연못에는 금붕어가 여유롭게 헤엄쳤다.



주간칼럼



동행(同行) – 함께 걸어가 는 힘

주간 방미영 교수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타인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 혼자서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성공을 향한 개인주의적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동행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특히 대학생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다. 학업, 대외활동, 취업 준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스스로 해내야 당연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면 결국 지치고 무너진다. 동행의 힘을 외면한 채 홀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동행을 두려워하는가? 아마도 실패와 비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렵고, 상대와 비교되는 상황이 불편하다. 하지만 동행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지,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다.

대학생 시절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조별 과제마저도 부담으로 느껴지며, 서로의 몫

을 나누기보다는 각자 분량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협력의 경험보다는 개인의 성과만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학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부담 없는 편안함보다는 불필요한 경쟁심이 앞서고,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성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도 '혼자서 해냈다'라는 성공담이 더 주목받고 칭송된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혼자서 이룬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며 나는 노력과 성취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하는 과정

을 통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행은 나를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돕고 이끌어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동행은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동행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결점을 감싸주고, 능력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길 길을 모색한다. 동행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행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더이상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

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동료를 찾아보자. 학업과 진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행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함께 걸어가는 힘은 생각보다 더 크고 강하다.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인생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 속에서 동행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손길이다. 대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빛나고, 더 단단해질 것이다.

| 기자의 눈 |

자연과 함께 사는 우리 집, ‘플랜테리어’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집의 구조와 조명, 가구, 청결 상태 등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곧 그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사는 의미는 꽤 고차원적이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후반 산업화가 진행되고 국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주거 환경이 획일화됐다. 이에 좁고 제한된 도시 구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반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테리어는 단순한 공간 연출을 넘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 중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플랜테리어(Planterior)’의 인기다.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

(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을 활용해 실내 공간을 꾸미는 디자인을 뜻한다. 기존의 인테리어가 깔끔한 화이트톤과 도시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기조였다면, 최근 몇 년 새에 자연적 요소를 접목한 플랜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

플랜테리어의 급부상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락다운(봉쇄 정책)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랜테리어는 외출하지 않고도 자연을 만끽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심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으로 떠올랐다. 2022년 현대리바트가 운영하는 홈퍼니싱 브랜드인 플랜테리어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240% 증가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참고: 매일경제]

플랜테리어의 장점으로는 심미적 효과 외에도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바로 실내 공기 정화 효과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식물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도심 속 미세먼지와 공해에 둘러싸인 채 생활하는 우리에게 식물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다.

또한 식물을 실내에 들임으로써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록색 식물을 가까이 두는 경우 인간은 스트레스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받는다고 밝혀졌다. 일례로 코로나19 시절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많은 이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했으니, 이러한 코로나 블루 역시 식물을 가까이에 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방증하듯 코로나 팬데믹 시

기인 2021년 11월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1.1%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물을 기르는 것에 관심이 커졌다고 답했다. [참고: 매일경제]

그러나 플랜테리어가 확산하면서 일부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물을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손가락질받고 있다. 플랜테리어의 인기와 함께 ‘반려 식물’이나 ‘식집사(식물+집사)’라는 개념이 등장할 만큼 식물에 대한 애정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식물 과양 건조 또한 증가했다. 유행을 따라 식물을 구해왔다가 관리의 어려움으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식물 양도’나 ‘식물 판매’ 등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현실을 비춰봤을 때, ‘반려’ 식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식물 역시 동물처럼 살아 있는 생명체이며, 적절한 환경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심과 책임감이 뒷받침될 때, 플랜테리어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이며, 우리가 있고 지냈던 생명을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플랜테리어를 통해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식물이 단순한 인테리어 요소이자 잠깐의 유행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체로 인식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 기자의 눈 |

불안사용법

국내외로 시끄러운 요즘,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만약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 더 이상 긴장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매일이 편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실 불안은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불안한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불안은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우리 선조들은 어둠 속에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대비

해야 했고, 처음 보는 열매에 독이 있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험 요소를 더 신속히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불안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던 인간은 맹수에 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었을 것이다. 즉, 불안이 있었기에 인류가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여 오늘날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태하고 무기력할 것이 다 생각한다. 우리는 왜 시험 전날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우리 선조들은 어둠 속에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대비

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물론 시험 성적도 좋지 않을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더 높은 목표로 이끌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불안 장애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미국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IM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성인의 약 19.1%가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또, 미국 성인의 약 31.1%가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불안 장애를 경험한다고 한다. 불안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부정

적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불안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알려진 ‘자이거르니 효과’가 좋은 예다. 이 효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성하지 못한 과제나 일이 있을 때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그 결과 더 명확하게 기억하며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예컨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을 느낄 때, 준비해야 할 내용을 잘게 나누고 아주 작은 키워드만 지정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억을 자극해 준비한 내용을 완성할 수 있다.

불안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만/파/식/적

시작이 반이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말 중 이런 것이 있다. “시작이 반이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니까,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완성이다.” 필자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니, 정말 재밌지 않은가? 물론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필자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다가온다.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첫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시작한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기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까지 생겨나는 것인지 하고 말이다.

기자 단 3명에서, 열댓 명이 모여도 완성하기 어려운 대판 판형의 9면 신문을 완성해 냈다. ‘시작이 반’ 이라는데 읽기 첫 신문인 587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행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필자에게는 이제 나머지 반밖에 안 남은 것이다. 물론 신문 발행은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않는다. 시작해서 반을 헤치었으니 남은 반은 또 열심히 발로 뛰며 채워나가야 한다.

지인들은 발행된 신문을 보고 “바이라인데 김나연 기자밖에 없다. 글을 대체 몇 개를 쓴 거냐”, “그냥 김나연 신문 아니냐” 등의 농담을 던졌다. 우연히도 이름도, 나이도 같은 기자와 동기로 들어와 5학기째 같이 글을 쓰고 있다. 작업하는 내내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물을 보니 감동이 교차한다. 신문을 뒤덮은 ‘김나연’이란 이름에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안도감이 물러온다. 그래도 같이 남아주었던 김민채 기자 덕에 신문이 김나연 등의 이름으로만 뒤덮여 완성되지 않은 게 어딘가 싶다.

편집장의 무게는 참 무겁다. 신문 한 호를 직접 발행해 보니 더 뼈저리게 느꼈다. 대체 전대 편집장님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감도 안 잡힌다. 늘 전 편집장님께 “뭘 챙겨라”, “일찍 자라”, “푹 쉬어라” 잔소리를 늘어났었는데, 정작 본인도 편집장이 되고 나니 새벽 3, 4시에 잠들어 다음 날 1교시를 들으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오전 3시 47분이다. 몇 주 동안 고심해도 한 글자도 안 적히던 것이, 새벽의 힘을 빌리니 너무나도 쉽게 술술 적혀 내려간다. 이래서 밤에 늦게 잠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나 보다.

기사 작성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 항상 고민도 많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넘쳐난다. 우리 신문사에도 체계화된 커리큘럼이 있고 알려줄 것이 많으면 언론 직종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대학 언론은 좋은 경험이 될 텐데, 그저 아쉬울 뿐이다. 필자의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오늘도 묵묵히 글을 쓸 뿐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587호가 발행되는 데 흔쾌히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잘 일었다”, “고생 많았겠다”며 감사를 전해주는 이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힘차게 시작해 반을 지냈으니, 나에게 주어진 남은 반도 열심히 해 보겠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독자의 눈 |

현대사회의 요술램프 사용법

“기사? 그거 챗지피티한테 말하면 금방 써주는 거 아니냐?”

학보사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들은 말이다. AI, 특히나 생성형 AI를 발견한 현대인들은 불을 처음 마주한 원시인처럼 신났다. 작게는 내일 할 과제부터 크게는 취업까지 떠나 할 것 없이 AI를 사용으로 즐긴다.

개발 초창기 AI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다. 형태가 몽개진 그림이나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 경악을 초래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명확한 결과를 낸다. 불쾌한 끝까지를 넘어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준이다. 오늘날 AI는 단순 유행거리 이상으로 진화해 우리 삶에 발을 들인다. 그것도 정식으로 도입된 지 겨우 3년째의 동향이다.

사람들이 AI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편리함이 대단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생성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원하는 바를 말하며 클릭 한 번, 그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끝이다. 마치 (천일야화) 중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보는 듯하다. 이야기 속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닦으며 요정에게 소원을 빌었던 모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알라딘이 닦았던 램프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씩 주어졌다. 사람들은 앳다워 소원을 잘 비는 방법 내지는 램프를 잘 닦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1인 1 램프’의 규칙 속에서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바보가 된다. 나 또한 AI에 무지했기에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생성’에 익숙한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같은 분량의 글을 써야 할 때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유달리 속도가 더딘 것 같아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후에는 그 특유의 문체조차 보기 싫어졌다.

이야기 속 알라딘은 램프를 통해 유능한 인물이 됐다. 그렇다면 램프를 잃어버린 알라딘도 여전히 유능할까? 글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좋은 글을 작성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 나은 단어와 문장을 위해 사전을 찾아보고 시안을 여럿 만들며 비교하는 고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통해 문장력과 사고력은 성장한다. 반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과정 자체가 없다.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나 다를 없다.

우리는 요술램프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이 글은 AI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다. 하다못해 이미 쓴 문장을 개선하거나 유사어를 묻는 도움도 피했다. 물론 태 대학 학부에 기고하는 입장이기에 당연한 수순이지만, 앞서 후자에서서 들었던 말에 반항심이 들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AI를 쓰지 않았기에 이 글을 완성하기까지도 꽤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걸린 시간이 아깝진 않다. 그러면 AI의 도움도 없이 직접 써낸 소중한 글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제안해 본다. 간단한 것이라도 좋다. 램프의 도움 없이 직접 언거 해보는 건 어떨까.

윤수아 / 덕성여대신문 제82기 편집장

※ 독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책

회색과 분홍 사이에서 - 깨어서 꾸는 꿈 킷 피어슨



▲ 출처 : 알라딘

“회색이란 무엇일까? 회색은 차가운 비, 따끔따끔한 담요, 단단한 보도, 쓰레기통 속의 들쥐. 회색은 아무 색도 아니다.”

색으로 이분된 공간이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기쁨은 책을 읽으며 공상에 빠지는 순간.

그러던 어느 날, 토론토에서 빅토리아로 향하는 연락선 위에서 테오는 꿈에 그리던 ‘진짜 가족’을 마주친다.

눈을 뜬 순간, 기적처럼 그녀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 채, 테오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깨어서 꾸는 꿈”은 아동문학 작가 킷 피어슨이 쓴 책이다.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치하고 단순한 아동 판타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킷 피어슨의 글은 치밀한 구성과 생생한 묘사로 단번에 독자를 사로잡는다.

테오의 공상처럼 우리의 삶이 온통 장밋빛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테오 곁에 나타난 어느 영혼은 테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완벽한 세계에서 살 수 없기에 현실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은 더욱 마법 같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70살이지만 여전히 귀여운 꼬마 토끼 - 미피 70주년 생일 기념전: 미피와 마법 우체통



▲ 출처 : 중앙일보

종국 선 두 귀와 x자로 양다문 입, 새하얀 털까지. 너무나도 귀여운 토끼 캐릭터 ‘미피’는 많은 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함께 한 소중한 친구다.

전 세계 8,500만 부 이상 판매된 미피 시리즈의 주인공 미피는 작가 디 브루너가 자녀를 위해 그려준 작은 토끼 이야기로 시작됐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발견한다. 작가는 어린 시절 정원에 살던 토끼를 떠올리며 캐릭터를 상상했다.

미피는 ‘뽀비 아줌마’, ‘파일럿 삼촌’, ‘스녀피’, ‘보리스’ 등과 함께 귀엽고 섬세한 매력으로 지금까지 사랑받아왔다.

전시회는 ‘0.0 어서 오세요!’부터 ‘8.0 갤럭시’까지, 총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에서 아주 귀여운 정보도 얻었다. 미피의 입이 ‘x’ 자인 이유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 전시기간 : 2024.11.21.(목) - 2025.08.17.(일)
· 관람시간 : 10:00 - 20:00(입장마감 19:00), 매월 셋째 주 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인사아트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9, 안병인사동 B1)
· 관람요금 : 성인(만19세-64세) 20,000원 / 청소년(만13세-18세) 16,000원 / 어린이(36개월-12세) 13,000원 / 특별요금(만65세 이상, 장애인 및 동반 1인, 국가유공자 본인) 현장 구매 시 10,000원 / 36개월 미만 유아 무료

오늘의 장소

‘섬 속의 절’... 청평사에 다녀오다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3월, ‘섬 속의 절’이라 불리는 청평사에 다녀왔다. 청평사는 자연과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에 자리 잡고 있다.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산길을 따라 쪽 걸어 올라가다 보면 청평사 공주와 상사범의 슬픈 전설을 품고 있는 조형물이 보인다.

삼살개를 따라 보물 제164호로 등록돼 있는 회전문을 지나면 절 내부가 나온다.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가람배치 유구와 고려시대의 정원을 살필 수 있다. 또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주변 환경에 각과 영지 등 인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절로 감동을 일으킨다.

내려오는 길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구룡폭포를 볼 수 있었다.

· 주 소 : 강원 춘천시 오봉산길 810
· 운영시간 : 10:00~17:00 · 입장료 : 무료

오늘의 영화

삶은 것투성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 썸머 고스트 (2021)



▲ 출처 : 얼리버드픽처스

삶을 끝낼길 바라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영혼이 있다.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토모야.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로운 아이오.

빛나야 할 미래를 빼앗겨버린 시한부 료. 세 사람은 불꽃을 태워 소문의 유령, 이야네를 부른다.

유령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늘을 날거나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한밤중 미술관을 거닐 수도 있다.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어 새로운 답이 필요해 유령을 찾아 나섰지만, 점차 처음의 의도와 달라졌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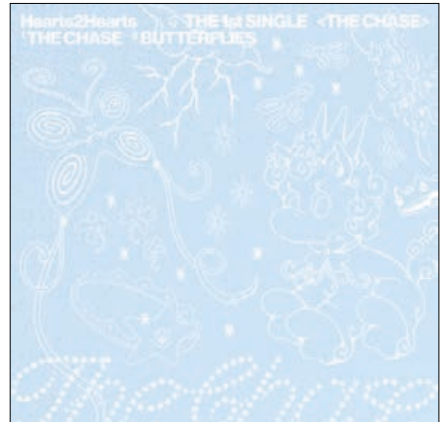
신기루 같던 유령과의 여정은 어느새 지나가고, 여전히 지겹게도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분명 변한 것이 있다.

여름이 오면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겨울을 간절히 바라지만, 막상 겨울이 오면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선명한 햇빛과 짙은 채도의 여름을 그리워한다.

오늘의 음악

2025년 K-POP 신인 그룹이 전하는 용기의 메시지

현재 K-POP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해 매해 신인 아이돌들이 쏟아내고 있다. 2025년에도 K-POP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 출처 : 빅스

♪ 〈The Chase〉 - Hearts2Hearts

“내 모험의 첫걸음을 Sparkle sparkle 수수께끼 난 더 알고 싶어 그새 커버넌 걸까 설명할 수 없는데 온 힘을 다해 난 달려 멈춰 서 있고 싶지 않아 이 커다란 Emotion yeah”



▲ 출처 : 빅스

♪ 〈Mama Said(뭐가 되려고?)〉 - KickFlip

“Do whatever I want 잔소리 Swing Why you looking so mad? 아 왜 또 이러신대 내 걱정은 No thanks Ooh ooh 이다음 멘트는 알지? Ooh ooh 잘되라고 하는 소리 Sorry mom I don't mind 젓가락질 못 해도 걱정 마 밥만 잘 먹죠”



▲ 출처 : 빅스

♪ 〈I DO ME〉 - KiiiKiii

“I could go somewhere Maybe anywhere 내 직감은 늘 맞았어 Just feel it 손끝엔 나비 That's my living ring 내 걱정 NO! 난 나답게 더 빛나져”

이 곡의 첫 구절처럼, 우리의 직감은 언제나 옳다. 내 감정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오늘의 기념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국제 강아지의 날



스포츠 기사를 쓰러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쳤는데,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로고 옆에서 움직이는 강아지를 그림에 관심을 빼앗겼다.

스�포츠 기사를 쓰러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쳤는데,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로고 옆에서 움직이는 강아지를 그림에 관심을 빼앗겼다.

도 2004년 폴린 페이지에 의해 기념일로 제정됐다. 세계 개의 날은 반려견의 소중한 과 중요성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모든 품종의 개를 기념하는 날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은 2006년 미국 반려동물학자인 폴린 페이지(Colin Page)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국제 강아지의 날, 세계 개의 날만큼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주변의 강아지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어떨까?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국제 강아지의 날, 세계 개의 날만큼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주변의 강아지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어떨까?

국제 강아지의 날, 세계 개의 날만큼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주변의 강아지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어떨까?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